

서울·인천 중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선호 스타일에 따른 의복행동 및 의복구매행동

최수빈·조우현*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Clothing Behavior, and Purchase Behavior on Body Cathexis and Clothing Style of Adolescence in Seoul and Incheon

Su-Bin Choi · Woo-Hyun Cho*
Institute of Human Ecology, Inha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Inha University*
(2003. 11. 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body cathexis, preference in style,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 Based upon the effect of body cathexis and preference in style on adolescence clothing purchase behavior, this study suggests classification of the future adolescence consumers for fashion marketing. Th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1400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and Incheon.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SPSS. This study used body cathexis and preference in style as Independent variables,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 as Dependent variables.

Key Words: body cathexis(신체만족도), preference in style(선호스타일), clothing behavior(의복행동), clothing purchase behavior(의복 구매 행동), adolescence(청소년)

I. 서론

매스미디어가 문화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매스미디어와 그의 주된 추종세력인 청소년은 서로 밀접한 공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새로운 문화의 소개에 따른 청소년들의 신속한 문화습득과정, 청소년의 문화취향

에 맞추어 자신을 연출하는 연예인들과 매스미디어의 노력은 현 문화의 중심세력을 청소년으로 바꾸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문화는 그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 패션문화에서도 청소년의 하위문화가 기성문화에 전달되는 문화역행현상이 종종 발견되어지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위해 누구나 피할 수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INHA-22101-01)

없는 성장과정이다. 청소년기엔 외형적 변화를 이루는 신체적인 발달과 정서적, 사회적, 감성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가족이나 어른들로부터 이탈하고, 또래 집단의 수용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라고 정의한다¹⁾.

1990년대 우리나라에선 신세대란 말과 함께 청소년과 그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신세대와 기성세대간에 문화충격과 마찰이 종종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해도구가 필요하였다. 이 화해도구로 이들 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경험 차이의 이해를 들수 있다. 박재홍의 연구(1995)에 따르면 현대 청소년이 겪은 시대경험은 경제적 풍요, 글로벌 문화,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 통제와 자율의 교차이며 대중소비문화의 발달과 관심, 욕구의 다원화이고, 이런 문화시대를 거친 신세대 청소년들은 소비 지향적, 개인 지향적, 탈 권위 지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²⁾.

이들은 기성세대가 경험한 경제적 빈곤, 후진 사회 소속인으로써의 절망감이나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하여, 생산시대를 산 기성세대와의 정서적 마찰을 일으키며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전통가치와 기성세대를 부정한다고 한다³⁾.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또래 집단에 입문하는 문화코드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의복 문화는 자신을 기성세대로부터 분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의 청소년 하위문화와 스트리트 패션은 각 세대의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⁴⁾.

한국의 의류시장에서도 청소년을 핵심적인 의류소비집단으로 인식하여 청소년의 패션 스타일과 감각을 추종하고 있다. 96년 이후 스트리트

패션을 제품의 컨셉으로 하는 영 캐주얼 브랜드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X세대, Y세대로 이어지는 청소년층의 스트리트 패션은 유행의 흐름을 읽고 예측하는 요소로 부각되었다⁵⁾.

본 연구는 현재 서울과 인천지역의 청소년의 신체 만족도 및 선호 의복 스타일과 이에 따른 의복행동과 의복구매행동양식을 조사하였다. 의류 소비자의 구매형태는 합리적인 성향보다 감각적인 성향을 이루고 있어 패션 산업에 있어 소비자의 구매행동양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로 현 서울과 인천지역의 청소년의복문화 트렌드를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청소년의 의복 심리적 연구분야 뿐 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 패션마케팅의 소비자의 유형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복식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및 착용자의 행동을 의미하며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성격, 태도, 신분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⁶⁾.

청소년시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도구로 의복을 이용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청소년의 의복행동은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적 신분에 소속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표시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의복은 사회를 향한 자신의 이름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의복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이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

1) Rolf. E. 뮤즈, 송정두 역 (1981). 청소년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p.10.

2) 박재홍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사회학 제 29집, pp.655-660 김명심, 청소년 패션의 주체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1 재인용

3) 정희옥, 이춘화 (1999). 청소년의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한국·중국·일본·미국 청소년의 비교. 한국청소년개발원, pp.23-24.

4) 김정연 (1997). 한국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스트리트패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p.2.

5) 전계서

6) 임지경 (1985).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4.

치며, 의복이 주는 좋은 느낌이나 분위기를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심리적 의존성과 동조성이 강하게 나타난다⁷⁾.

윤창숙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의복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연구에 의하면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의복 선택 시 기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그들의 기분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컸다⁸⁾.

의복행동에 있어서 요인 중 동조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의복을 올바르게 적절하게 입고자하는 욕구와 자기 자신이 소속집단의 의복규범에 따름으로써 집단에 승인되고 수용되는 욕구로 나뉘어 진다. 의복을 적절히 입고자 하는 동조성은 동조행동이 목표를 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자기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의복 규범을 따름으로써 집단에 승인되고 받아들여지는 욕구로 동조하는 것은 동조행동 그 자체가 목표가 된다. 선행된 연구⁹⁾에 의하면 동조성이 강한 학생일수록 복장 규범에 더 순응하고 학생들은 의복행동에 있어서 개성 요인은 복장 규범의 요인들에 부적인 상관관을 보였다.

사회성이 높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중생일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청소년기는 그들의 소속집단에 동조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집단의 동조욕구를 의복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의복의 관심은 12세부터 증가하여 18세 절정을 이루는데 이에 의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조성이 강하다.

청소년기의 자아형성을 위한 자아수용단계에서 자아수용의 정도에 따라 의복행동이 달라지

는데 자아형성을 위한 자아수용도가 높을수록 자아위주의 복식착용을 하며 자아수용이 낮을수록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을 한다.¹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¹¹⁾에 의하여 의복행동을 크게 과시,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동조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 의복구매행동

청소년은 자신의 의복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패턴을 따르고 있는지에 관한 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청소년 소비주의 성향에 관한 박미정, 윤정혜(2000)의 연구¹²⁾를 보면 청소년기의 소비주의 성향요인을 타인·외모지향, 유행추구, 차별화로 나눈다. 청소년기는 부모나 학교, 선생님보다 동년배들의 의견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¹³⁾

청소년 소비자들은 자신을 동일시하고 동료집단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며,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리적 모방소비와 동화소비 내지는 획일화된 소비와 타인 의식적인 소비형태가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문화의 특징이다. 유행추구는 단지 이들은 잡지, 영화, 신문, TV등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것과 유행되는 것을 신속히 받아들여 특정한 취향을 이상으로 정하여 취향이나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심리나, 돋보이고 싶은 개성주의와 신분상승의 욕구 등이 혼합된 사회적 동조행위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구매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외모 지향중심으로 송은경의 연구¹⁴⁾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형성을 영향을 주는 요인인 부모의 영향 친구의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7)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복식학회 20(4), p.669

8) 전계서

9) 박미에 (1991). 여자중·고등학생들의 복장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및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Drake, M.F. & I. M. Ford, op cit., pp.283~291.

11)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복식학회 20(4).

12) 박미정, 윤정혜 (2000). 청소년소비자의 자아정체감 상태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소비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30(3).

13) Colema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박미정, 윤정혜 (2000). 청소년소비자의 자아정체감 상태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소비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3(3), p.73.

3. 신체만족도

청소년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생의 여러 단계 중에서 가장 불안정하며 갑작스런 신체적인 변화에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복이나 외모로서 사회적 승인을 얻는다고 생각하여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의복이나 화장, 몸치장 등으로 불안감을 보완하려는 경향이 높다.

선행연구에 의하며,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의 용모에 불만족하며, 남자보다 여자가 불만족하여 의복에 관한 관심이 높다고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 만족도에 대한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청소년 패션의 유형과 선호 스타일의 성립

한국은 1983년 중·고등학교의 교복자율화이후 교복이 잠시 폐지되었고 그 후 1986년 9월부터 다시 교복착용이 허용되어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1983년 이후 청소년의 문화가 급속도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교복을 착용하여도 학생에 관한 의복규범이 많이 완화되었다. 최근 청소년은 패션 산업의 주요 소비자층으로 부상하여 기성세대와 의복규범과 많은 이질성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문화란 청소년 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감정 및 사고유형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전체가 소유한 문화의 하위체계이라고 규정한다.¹⁴⁾

청소년 문화의 특징을 돌출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심상적인 돌출, 즉 특이한 의상, 차림새, 두발, 장신구들로 시각적인 돌출과 둘째, 부분문화돌출로 구분되는 걷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 인간관계를 맺는 태도 등이 성인의 태

도와 다르며 셋째, 청소년들의 유별난 표현, 언어와 의사전달표현의 돌출성과 넷째, 유행수용의 적극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청소년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하위문화는 선호스타일을 만들어낸다.

선행연구¹⁵⁾와 청소년 패션잡지에 나타난 현재 청소년 하위문화에서 유행하는 선호스타일로 힙합스타일, 키취스타일, 스포츠 스타일, 보보스 스타일, 공주형 복고스타일등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위 5가지 스타일을 바탕으로 힙합스타일(보이쉬, 터프), 세미 힙합스타일, 모던스타일(말쑥, 깔끔형-보보스), 키취스타일(저급통속), 복고스타일(귀공자형, 공주형)의 보기를 설정하였다. 이 스타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선호스타일에 따른 의복행동과 의복구매행동의 관계를 살펴본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7월 1개월간 서울과 인천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집단을 세분화하여 서울은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나누어 두 개의 모집단을 설정하였으며 인천은 소득수준이나 환경이 대체로 평준화되어있어 한 개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강남과 강북과 인천지역에 각각 약 500부씩 배포하였다. 강남지역에 504부, 강북지역에 500부, 인천지역에 512부씩 총 151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465부, 446부, 475부씩 총 138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고등학교는 실업계와 인문계 및 남·여학생을 구분하여 모집단을 만들었고, 중학생은 남·여학생으로만 모집단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선 서울 인천지역

14) 송은경 (1997).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 및 소비주의 성향과 관련요인-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 황정규 외 (1992). 청소년 문화의 변천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5.

16) 김정연 (1997). 한국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스트리트패션 연구 -1990년대 스트리트패션과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86명을 1개의 모집단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5〉참조)

의복행동과 의복구매행동은 각 문항별 5점 리커트 척도로 설정하였으며 신체만족도 문항 6가지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2개 문항을 선택 문항으로 설문하였다. 선호스타일의 세 문항도 보기선택문항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측정도구

1. 의복행동

의복행동을 1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애란, 김양진 (1996)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의복관심요인이 결여된 과시, 심리적 의존성과 동조성으로 총9개 문항의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1〉 의복행동의 요인 분석결과

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1 : 과시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남의 눈에 띄는 색의 옷을 입고 싶다.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싶다. 옷을 잘 입고 있을 때 남들이 바졌으면 한다. 나의 옷차림이 어떻게 보이나 늘 신경을 쓴다.	.712	.238	-.122
요인2 : 심리적 의존성 나는 옷을 입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옷을 자주 입는다. 그 날의 기분에 따라 옷을 결정한다. 내가 입는 옷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곤 한다.	.283	.657	3.860E-02
요인3 : 동조성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어야 마음이 편하다. 만약 어떤 모임에서 내가 친구들과 다른 옷을 입으면 소외감을 느낀다.	.119	8.311E-02	.846
고유치	2.577	1.875	1.620
신뢰도	.826	.685	.685
총분산에 대한 비율	28.639%	20.835%	18.003%
총설명력		67.476%	

〈표2〉 의복행동의 Commuality

	Initial	요인 3
의복행동1	1.000	.579
의복행동2	1.000	.748
의복행동3	1.000	.789
의복행동4	1.000	.597
의복행동10	1.000	.514
의복행동	111.000	.725
의복행동12	1.000	.635
의복행동14	1.000	.737
의복행동15	1.000	.748

2. 의복구매행동

의복구매행동의 요인 분석을 하여 부모님의 영향을 동조성과 친구들의 영향보다는 외모지향성이 강하게 들어나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3〉 의복구매행동 요인분석

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요인 1	요인 2
요인1 : 동조성 (부모님의 영향) 의복을 구입할 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겉모습보다 사람의 내면적 가치를 충실히 나타내는 옷을 산다. 품질이나 가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산다. 부모님께서 옷의 구입을 가르친 대로 사서 입는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의복을 구입한다.	.105	.514
요인2 : 외모지향성 친구가 유명메이커를 사면 나도 산다. 현재 유행하는 옷이면 반드시 구입한다. 나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당장 필요없어도 산다. 연애인들이나 잡지에 나온 모델들이 입고 있는 스타일의 옷을 산다. 작년에 입던 옷은 입고 싶지 않다. 키가 커 보이는 옷은 길을 지나가다가도 산다.	-6.9E-02	.623
고유치	-6.2E-02	.537
신뢰도	-1.113	.775
총분산에 대한 비율	2.055E-02	.699
고유치	.732	-4.0E-03
신뢰도	.785	-2.0E-02
총분산에 대한 비율	.714	-8.6E-02
고유치	.740	-1.5E-02
신뢰도	.583	-.117
총분산에 대한 비율	.657	.126
고유치	3.012	2.068
신뢰도	.629	.794
총분산에 대한 비율	27.385	18.798
총설명력		

〈표4〉 의복 구매행동의 Communalities

	Initial	Extraction
의복 구매 행동1	1.000	.275
의복 구매 행동4	1.000	.393
의복 구매 행동5	1.000	.292
의복 구매 행동	61.000	.614
의복 구매 행동7	1.000	.489
의복 구매 행동8	1.000	.535
의복 구매 행동9	1.000	.616
의복 구매 행동10	1.000	.517
의복 구매 행동11	1.000	.548
의복 구매 행동12	1.000	.353
의복 구매 행동13	1.000	.448

3.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의복행동과 의복 구매행동의 상관관계를 위하여 총 8가지 문항을 만들었다. 신체를 얼굴과 머리색깔과 키와 몸무게와 체형으로 나누어 만족도를 조사하는 다섯 문항과 성형수술을 원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7번과 8번 문항은 성형을 받고 싶은 부위와 원하는 머리색깔을 질문하여 각각 7가지와 6가지의 보기를 설정하여 선택케 하였다. 신체 선호도를 조사한 1번 문항에서 6번 문항의 신뢰도가 $\alpha = .6946$ 로 신뢰할만하였고 7번 8번 문항은 빈도 분석을 하였다.

4. 선호 스타일

선호스타일은 청소년들이 즐겨 착용하는 의복의 유행 스타일을 선행연구와 패션 잡지를 통하여 선호스타일 5가지를 선별하였다. 설문은 자신의 평소의 의복스타일과 선호하는 의복스타일 그리고 선호하는 이성의 의복 스타일을 묻는 3 문항으로 보기로 제시한 5가지 스타일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하여 선호스타일에 따른 의복행동과 의복구매행동과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타일로는 힙합스타일(보이쉬, 터프), 세미 힙합스타일, 모던스타

일(말쑹, 깔끔형-보보스), 키취스타일(저급통속), 복고스타일(귀공자형, 공주형)이며 선호 스타일의 신뢰도는 $\alpha = .5430$ 으로 신뢰할 만 하다.

5. 인구통계학적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서울의 강남과 강북, 인천은 중상, 중하지역을 나누어 고등학교는 인문계열 고등학교와 실업계열 고등학교로 나누어 설문하였으나 전체 1386명의 학생을 1개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의복 구매행동

신체 만족도 조사에서 두부와 전신부위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두부에 있어서는 얼굴과 두발의 색깔에 대한 만족도와 전신에 관하여는 몸무게와 키 그리고 체형에 관한 만족도를 설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형에 관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두부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조사대상자들에게 가장 큰 고

<표5> 성별 * 학교지역

의류제품평가기준			학교지역				계
			강남	강북	인천 중상	인천 중하	
성별	남 학 생	모집단	200	198	184	39	621
		성별	32.2%	31.9%	29.6%	6.3%	100.0%
		학교지역	43.0%	44.4%	46.7%	48.1%	44.8%
		% of Total	14.4%	14.3%	13.3%	2.8%	44.8%
성별	여 학 생	모집단	265	248	210	42	765
		성별	34.6%	32.4%	27.5%	5.5%	100.0%
		학교지역	57.0%	55.6%	53.3%	51.9%	55.2%
		% of Total	19.1%	17.9%	15.2%	3.0%	55.2%
		모집단	465	446	394	81	1386
		성별	33.5%	32.2%	28.4%	5.8%	100.0%
		학교지역	100.0%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33.5%	32.2%	28.4%	5.8%	100.0%

민은 몸무게임을 알 수 있다.

〈표6〉 신체 만족도 빈도 분석

	1~2점	3~5점	계
나의 얼굴생김새에 만족한다.	29.5%	70.5%	100%
나의 머리색깔에 만족한다.	22.9%	77.1%	100%
나의 키에 만족한다.	53.7%	46.3%	100%
나의 몸무게에 만족한다.	60.9%	39.1%	100%
나의 체형에 만족한다.	58.5%	41.5%	100%
나의 얼굴에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	51.4%	48.6%	100%

신체 만족도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구매행동의 연관성을 알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결과 신체 만족도에 따라 의복행동 및 의복 구매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7〉에서와 같이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 및 구매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6번 문항은 반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회귀분석 한 결과 〈표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의복행동과 의복구매행동의 요인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신체만족도의 각 문항을 회귀분석 결과가 〈표9〉-〈표12〉와 같다. 얼굴의 만족도는 의복구매행동의 외모지향성과 동조성에 정의 상관관계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모든 의복행동요인이 외모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두발의 색깔과는 의복구매행동이 부의 관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부분에서는 키의 만족도

〈표7〉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및 의복구매행동의 상관관계

		신체만족도	의복구매(외모)	의복구매(동조)	의복행동(과시)	의복행동(의존)	의복행동(동조)
신체만족도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의복구매(외모)	Pearson Correlation	-.133(**)					
	Sig. (2-tailed)	.000					
	N	1346					
의복구매(동조)	Pearson Correlation	-.206(**)	.535(**)				
	Sig. (2-tailed)	.000	.000				
	N	1345	1356				
의복행동(과시)	Pearson Correlation	-.132(**)	.437(**)	.816(**)			
	Sig. (2-tailed)	.000	.000	.000			
	N	1354	1365	1367			
의복행동(의존)	Pearson Correlation	-.080(**)	.386(**)	.548(**)	.530(**)		
	Sig. (2-tailed)	.003	.000	.000	.000		
	N	1353	1363	1362	1371		
의복행동(동조)	Pearson Correlation	-.149(**)	.397(**)	.288(**)	.300(**)	.203(**)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N	1353	1364	1363	1372	1370	

〈표8〉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및 의복구매행동의 회귀분석

항 목	요 인	B	t
신체만족도	의복구매행동(외모)	-127	-4.935**
		R=.018 F=24.355	
신체만족도	의복구매행동(동조)	-194	-7.720**
		R=.042 F=59.602	
신체만족도	의복행동(과시)	-107	-4.894**
		R=.017 F=23.950	
신체만족도	의복행동(의존)	-5.0E-02	-2.937**
		R=.006 F=8.628	
신체만족도	의복행동(동조)	-6.2E-02	-5.550**
		R=.022 F=30.804	

〈표9〉 신체만족도 1 (얼굴)

요인	B	t
의복구매행동(외모)	.453	3.310**
	R=.081 F=19.555	
의복구매행동(동조)	.531	3.962**
	R=.095 F=23.475	
의복행동(과시)	.567	4.867**
	R=.072 F=17.453	
의복행동(의존)	.529	5.839**
	R=.055 F=13.062	

〈표10〉 신체 만족도 2 (머리색깔)

요인	B	t
의복구매행동(외모)	-.356	-3.111**
	R=.081 F=19.555	
의복구매행동(동조)	-.451	-3.698**
	R=.095 F=23.475	
의복행동(의존)	-.163	-2.143**
	R=.055 F=13.062	

〈표11〉 신체 만족도 4 (몸무게)

요인	B	t
의복구매행동(동조)	-.278	-2.090*
	R=.095 F=23.475	
의복행동(의존)	-.185	-2.066*
	R=.055 F=13.062	

〈표12〉 신체 만족도 6 (얼굴 성형-반전)

요인	B	t
의복구매행동(외모)	-.862	-9.873**
	R=.081 F=19.555	
의복구매행동(동조)	-.842	-9.843
	R=.081 F=19.555	
의복구매행동(동조)	-.304	-7.900**
	R=.095 F=23.475	
의복행동(과시)	-.679	-1.498**
	R=.072 F=17.453	
의복행동(의존)	-.439	-7.609**
	R=.055 F=13.062	

와는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행동이 상관이 없었으나 몸무게의 만족도와 의복구매행동 중 동조성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

굴부분의 성형에 관한 질문에서는 성형을 원할 수록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보아 청소년들의 신체관심은 체형보다 얼굴이나 두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형을 원하는 부위의 빈도분석결과에서도 눈-70.6%, 코-66.6%, 치아-72.9%, 얼굴형-78.5%, 머리변색-81.2%에 비해 체중감량을 원하는 학생은 64.9%로 다른 문항의 수치보다 낮았다.

2. 선호스타일에 따른 의복행동 및 의복구매행동

나의 스타일과 선호스타일을 묻는 두 문항의 빈도분석을 보면 나의 스타일을 묻는 문항에서 터프, 힙합, 보이쉬 스타일은 8.3%(남-8.1%, 여-8.5%), 세미힙합 13.4%(남-13.2%, 여-13.6%), 말쑥, 깔끔 모던 67.7%(남-67.0%, 여-68.2%), 키취, 저급통속 4.0%(남-5.8%, 여-2.6%) 귀공자, 공주형, 복고 6.4%(남-5.7%, 여-7.1%)로 나타나 말쑥, 깔끔, 모던한 스타일로 자신을 평가한 학생들이 지대하였다. 선호스타일도 역시 말쑥, 깔끔한 모던한 학생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5.0%

〈표13〉 나의 스타일*의복행동(과시)

스타일	의복행동 (과시)			계
	Low	Mid	High	
터프, 힙합, 보이쉬	10.9%	50.0%	39.1%	100.0%
세미힙합	9.1%	41.5%	49.4%	100.0%
말쑥, 깔끔 모던	11.1%	44.7%	44.2%	100.0%
키취, 저급통속	25.0%	51.9%	23.1%	100.0%
귀공자, 공주형, 복고	7.1%	34.1%	58.8%	100.0%
계	11.1%	44.3%	44.6%	100.0%

〈표14〉 나의 스타일*의복행동(의존)

스타일	의복행동 (의존)			계
	Low	Mid	High	
터프, 힙합, 보이쉬	17.4%	41.3%	41.3%	100.0%
세미힙합	19.4%	38.3%	42.3%	100.0%
말쑥, 깔끔 모던	19.8%	41.6%	38.6%	100.0%
키취, 저급통속	35.3%	47.1%	17.6%	100.0%
귀공자, 공주형, 복고	12.9%	40.0%	47.1%	100.0%
계	19.8%	41.2%	39.0%	100.0%

〈표15〉 나의 스타일*의복행동(동조)

스타일	의복행동 (의존)			계
	Low	Mid	High	
터프, 힙합, 보이쉬	60.9%	30.0%	9.1%	100.0%
세미힙합	56.8%	34.1%	9.1%	100.0%
말썽, 깔끔 모던	51.7%	33.7%	14.5%	100.0%
키취, 저급통속	59.6%	30.8%	9.6%	100.0%
귀공자, 공주형, 복고	58.3%	20.2%	21.4%	100.0%
계	53.9%	32.5%	13.6%	100.0%

남-49.6%, 여-59.1%)

나의 스타일과 의복행동의 요인을 빈도분석 하면 〈표14〉와 〈표1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키취와 저급통속 유행을 따르는 학생은 의복행동의 의존성과 동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취는 사회와 주변사람들에게 동조하기보다 개성 있는 자신을 표현하고자하는 학생이 선호하는 스타일임을 보여준다. 선호스타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시성과 동조성, 의존성이 낮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키취이며 사회 일탈적 또는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스타일이 키취임을 보여준다. 반면 사회와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조선과 의존성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은 귀공자, 공주형, 복고

〈표16〉 선호 스타일*의복행동(과시)

스타일	의복행동 (과시)			계
	Low	Mid	High	
터프, 힙합, 보이쉬	14.1%	47.6%	38.2%	100.0%
세미힙합	9.3%	46.5%	44.2%	100.0%
말썽, 깔끔 모던	11.1%	44.9%	44.0%	100.0%
키취, 저급통속	18.8%	31.3%	50.0%	100.0%
귀공자, 공주형, 복고	8.7%	37.3%	54.0%	100.0%
계	11.0%	44.4%	44.5%	100.0%

〈표17〉 선호스타일*의복행동(의존)

스타일	의복행동(의존)			계
	Low	Mid	High	
터프, 힙합, 보이쉬	20.9%	44.0%	35.1%	100.0%
세미힙합	18.6%	40.3%	41.2%	100.0%
말썽, 깔끔 모던	20.4%	39.9%	39.7%	100.0%
키취, 저급통속	37.5%	43.8%	18.8%	100.0%
귀공자, 공주형, 복고	15.4%	44.4%	40.1%	100.0%
계	19.8%	41.2%	39.1%	100.0%

〈표18〉 선호스타일*의복행동(동조)

스타일	의복행동(의존)			계
	Low	Mid	High	
터프, 힙합, 보이쉬	57.4%	30.0%	12.6%	100.0%
세미힙합	57.1%	30.5%	12.4%	100.0%
말썽, 깔끔 모던	51.2%	35.5%	13.3%	100.0%
키취, 저급통속	62.5%	25.0%	12.5%	100.0%
귀공자, 공주형, 복고	57.4%	25.3%	17.3%	100.0%

스타일의 복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구매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19〉-〈표 2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키취스타일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의복구매행동 중 동조성과 외모지행성이 가장 낮으며 귀공자, 공주형, 복고스타일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동조성과 외모지행성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19〉 나의스타일*의복구매행동(동조)

스타일	의복구매행동(동조)			계
	Low	Mid	High	
터프, 힙합, 보이쉬	13.8%	60.6%	25.7%	100.0%
세미힙합	13.7%	58.3%	28.0%	100.0%
말썽, 깔끔 모던	12.8%	61.1%	26.0%	100.0%
키취, 저급통속	21.2%	63.5%	15.4%	100.0%
귀공자, 공주형, 복고	8.2%	47.1%	44.7%	100.0%
계	13.1%	59.8%	27.0%	100.0%

〈표20〉 나의스타일*의복구매행동(외모)

스타일	의복구매행동(외모)			계
	Low	Mid	High	
터프, 힙합, 보이쉬	52.3%	42.2%	5.5%	100.0%
세미힙합	48.3%	44.3%	7.5%	100.0%
말썽, 깔끔 모던	46.7%	48.8%	4.5%	100.0%
키취, 저급통속	56.9%	41.2%	2.0%	100.0%
귀공자, 공주형, 복고	31.8%	58.8%	9.4%	100.0%
계	46.9%	47.9%	5.2%	100.0%

〈표21〉 선호스타일*의복구매행동(동조)

스타일	의복구매행동(외모)			계
	Low	Mid	High	
터프, 힙합, 보이쉬	15.4%	58.5%	26.1%	100.0%
세미힙합	11.5%	62.8%	25.7%	100.0%
말썽, 깔끔 모던	13.8%	60.1%	26.2%	100.0%
키취, 저급통속	6.7%	60.0%	33.3%	100.0%
귀공자, 공주형, 복고	8.1%	57.5%	34.4%	100.0%
계	12.9%	60.0%	27.1%	100.0%

〈표22〉 선호스타일*의복구매행동(외모)

스타일	의복구매행동(외모)			계
	Low	Mid	High	
터프, 힙합, 보이쉬	52.9%	42.3%	4.8%	100.0%
세미힙합	50.2%	44.5%	5.3%	100.0%
말쑥, 깔끔 모던	47.0%	47.6%	5.4%	100.0%
키취, 저급통속	31.3%	62.5%	6.3%	100.0%
귀공자, 공주형, 복고	36.6%	57.8%	5.6%	100.0%
계	46.9%	47.8%	5.3%	100.0%

3. 의복행동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

의복행동과 의복구매행동은 〈표23〉의 상관관계에서 보여지 듯 이 이 두 가지 사항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의복행동의 과시성, 의존성, 동조성이 높을 수록 의복구매의 동조성과 외모지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정의 관계에 있다.

〈표23〉 의복행동과 의복 구매행동의 상관관계

		신체만족도	의복구매(외모)	의복구매(동조)	의복행동(과시)	의복행동(의존)	의복행동(동조)
의복구매(외모)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의복구매(동조)	Pearson Correlation	.535(**)					
	Sig. (2-tailed)	.000					
	N	1356	1368				
의복행동(과시)	Pearson Correlation	.437(**)	.816(**)				
	Sig. (2-tailed)	.000	.000				
	N	1365	1367				
의복행동(의존)	Pearson Correlation	.386(**)	.548(**)	.530(**)			
	Sig. (2-tailed)	.000	.000	.000			
	N	1363	1362	1371			
의복행동(동조)	Pearson Correlation	.397(**)	.288(**)	.300(**)	.203(**)		
	Sig. (2-tailed)	.000	.000	.000	.000		
	N	1364	1363	1372	1370		

〈표24〉 의복행동과 의복 구매행동(일탈)의 회귀분석

항목	요인	B	Beta	t
의복행동(과시)	의복구매행동(외모)	.293	.247	8.905**
		R ² =.295 F=188.167		
의복행동(의존)		.306	.198	7.325**
		R ² =.295 F=188.167		
의복행동(동조)		.641	.280	11.673**
		R ² =.295 F=188.167		

〈표25〉 의복행동과 의복 구매행동(동조)의 회귀분석

항목	요인	B	Beta	t
의복행동(과시)	의복구매행동(동조)	.837	.721	39.010**
R ² =.686 F=984.121				
의복행동(의존)		.239	.158	8.778**
R ² =.158 F=984.121				
의복행동(동조)		8.937E-02	.040	2.485**
R ² =.686 F=984.121				

VI. 요약

유효한 1386명의 서울과 인천지역의 중, 고등학생들 설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 지역 청소년들은 외모의 만족도보다 체형의 만족도가 낮았지만 얼굴모습과 헤어스타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성형을 원하는 곳도 신체보다는 얼굴부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눈과 얼굴형을 성형하기 원하였고 81.2%의 학생이 머리변색을 원하고 있었다. 얼굴 만족도는 의복구매행동의 일탈과 동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의복행동에서는 외모에 만족할수록 모든 의복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색깔의 만족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머리색깔에 불만족 할수록 외모지향적이며 과시적인 의복구매행동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의복행동에서도 의존적이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스타일과 선호스타일의 조사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학생이 말쑥하고 깔끔하며 현대적인 세련미를 원하였고 키취스타일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의복행동의 과시성과 동조성, 의존성 의복구매행동의 외모지향성과 동조성 모두 낮았다. 반대로 의복행동의 과시성과 동조성, 의존성과 의복구매행동에서도 외모지향성이 특히 높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스타일이 귀공자형과 공주형, 복고형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스타일이다.

이효리라는 문화아이콘에서 나타났듯이 현대는 섹시한 체형에 완벽히 균형 잡힌 가름한 서구

형의 얼굴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 서울과 인천지역의 청소년의 선호 의복 스타일은 깔끔하고 평범한 스타일이었고 이들은 신체보다는 얼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후속연구로 서울과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의 지역적인 차이와 계열별 학교간의 비교분석이 뒤따르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승희, 이명희 (1993). 성인 남자의 의복구매동기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1).

강혜선 (1995).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복식학회 20(4).

김명심 (2001). 청소년 패션의 주체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양진, 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식학회 16(2).

김정연 (1997). 한국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스트리트패션 연구 -1990년대 스트리트패션과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영은 (1992). 의복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유사성과 친숙성을 중심으로. 서

- 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아, 박혜선 (2000) 남자 중·고등학생의 자기이미지와 의복추구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24(5).
- 박미애 (1991). 여자중·고등학생들의 복장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및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 윤정혜 (2000). 청소년소비자의 자아정체감 상태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소비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티문화연구 제3(3).
- 박재홍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사회학 제 29집.
- 송은경 (1997).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 및 소비주의 성향과 관련요인-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임치경 (1985).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재은, 남윤자 (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23(1).
- 정희옥, 이춘화 (1999). 청소년의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한국·중국·일본·미국 청소년의 비교.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정규 외 (1992). 청소년 문화의 변천고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황진숙, 나영주 (1999). 남자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선호의 관계 연구. 한국복식학회 49.
- Coleme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Drake, M.F. & I. M. Ford,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 Rolf, E. 뮤즈, 송정두 역 (1981). 청소년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